

중·동구 지역 투자 환경 해설

1. 개황

중·동구지역 국가들중 비교적 성장잠재력이 큰 헝가리, 폴란드, 체코 및 슬로바키아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89년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92년을 고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중 가장 감소 폭이 큰 나라는 헝가리로서 '92년 16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이 '93년에는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수준에 머물렀다.

중·동구지역에서 비교적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정리한다.

2. 헝가리

헝가리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일찍부터 가입했고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인근 국가에 비해 비교적 시장경제로의 개혁 추진이 순조로운 편이다.

'92년말 헝가리의 총외채액은 184억 달러로 '91년말에 비해 9억달러가 줄었으나 '91~'92년 연간 외채상환 및 이자 지급액은 이 나라 경제 수출액의 36%에 해당하는 50억 달러 수준으로 외채부담이 높아 경제개혁의 장애요인이 되었다.

한편 이 나라는 외환통제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헝가리 국영은행의 허가가 있어야만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통상의 결제조건은 LC일람불거래와 유전스 90~120일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3. 폴란드

파블라크 내각이 이끄는 폴란드 EU 정회원국 및 NATO 가입을 계속 추진하고 사유화 노선을 견지하는 등 비교적 온건한 개혁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코메콘체제의 와해에 따른 역내교역의 급격한 감소로 이 나라의 경화교역은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애로를 타개하고 대서방 교역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92년말 현재 432억달러에 이르는 외채문제 해결이 선결요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상거래는 취소불능신용장과 일람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선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선불거래를 요구받고 있다.

4. 체코

작년 1월 사회주의에 입각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슬로바키아와 서로 분리 독립하였으나 개혁과 분리 독립이라는 두번에 걸친 충격으로 체코경제는 개혁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다행히 '93년들어 체코는 물가상승률을 10% 이내로 억제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물가안정이라는 면에서는 경제개혁을 성공시키고 있다.

환경오염분야, 에너지 산업개발, 수송 통신 전자분야의 외환배정에 주안점을 두고있는 이 나라와의 거래는 주로 일람불화환어음, LC유전스 90~180일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5. 불가리아

'91년 11월 비공산정부 출범이후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가격 자유화와 대외 무역자유화조치를 실시한 결과 '91년도 물가는 334%나 상승,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였다.

전력가격과 연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93년에도 90%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부족현상으로 모든 외화지급 거래는 공식적으로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LC개설에 어려움이 있어 통상 계약금액의 30%는 구상 무역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6. 러시아연방

연 1~2%성장세를 유지하던 이 나라의 경제는 '91년이후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하고 있으며 '92~'93년간 9,900%에 달하는 물가폭등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개혁 추진과정에 따른 격심한 외환부족 사태로 외환통제가 실시되고 있어 대외거래 결제 지연기간이 최대 22개월에 달하고 있다.

7. 리투아니아

여타 구소련 연방국가보다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해오던 이 나라는 CIS가입 거부 이후 주요 원자재의 유입이 중지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환 보유고는 3억 4,000만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 소련연방과의 교역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 나라와의 거래형태는 주로 선불거래 및 확인부 취소불능 신용장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사용어 ③

선진 7개국 회담

선진 7개국(G7, Group of Seven) 재무장관들이 국제금융 현안이나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는 비공식회담. G7 재무회담이 열릴때 정상회담도 동시에 열린다.

지난 '67년 미국, 영국 주도하에 시작된 서방 선진 5개국(미국, 영국, 일본, 서독, 프랑스) 회담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가담하면서 G7 회담이 됐다.

금년도 G7 회담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통상적인 주제 이외에 달러 급락(엔화 급등) 저지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며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도 참석하게 된다.

G7 회담과는 별도로 선진 7개국 이외에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이 포함되는 G10 회담도 있다.